

시공-시행사 분쟁에 애먼 예비 입주자만 '발 동동'

본 입주 예정일서 2주가량 지연 공사비·국공유지 매입문제 발단 지자체 중재로 준공 승인 속도 '갈 곳 잃은' 예비주민 불안·불편 '보상 및 피해 최소화 적극지원'

광주 북구 운암동의 한 신축 아파트 시공사와 시행사의 공사비 및 토지 매입 관련 분쟁에 따른 입주 지연으로 입주예정자들이 큰 불편과 불안을 겪고 있다. 사업 운영자인 시행사 측은 예비 입주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25일 찾은 광주 북구 운암동의 한 신축 아파트. 공사는 마무리된 상태였지만, 당초 예정된 입주일이 10일 이상 지난 이날도 공사 비품 등이 그대로 곳곳에 남아 있었다.

총 303세대 규모로 조성된 해당 아파트는 전 세대가 선분양돼 지난 14일이 입주 예정일이었지만, 여전히 한 세대도 입주가 이뤄지지 않은 모습이였다.

시공사 A사와 시행사 B사 간의 공사비 갈등과 단지 내 광주시 소유 국공유지 매입 문제가 맞물려 준공 승인이 지연되면서 입주일이 오는 27일로 잠정 연기됐기 때문이다.

앞서 A사가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하에서 암석이 발견되는 등의 문제로 공사 일정에 차질이 생겼고, 이로 인해 인건비와 공사 비용이 예상보다 증가했다. 또 주요 건축 자재 가격 상승이 겹쳐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서 A사는 시행사인 B사에 100억원의 추가 공사비 지급을 요청했다.

그러나 B사는 '착공 후 공사비 증액은 없다'는 계약 내용을 토대로 난색을 표했으며, A사는 이를 70억원 규모로 낮췄지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게다가 해당 아파트 부지에 광주시 소유의 220평 규모 1개 필지가 포함되면서 이를 매입해야 지자체로부터 준공승인이 가능했다. 이에 B사는 토지 매입을 위해 A사 측에 기존 계약상 약속된 자금 지원을 요청했으나, A사가 이를 거부하면서 준공승인은 차일피일 미뤄졌다.

B사 측은 이에 대해 "공사 진행 중 비용 부족으로 준공 전 토지 매입과 등기비 등 자금을 시공사 측에서 미리 사용하고 추후 보충하기로 했다"면서 "그러나 준공을 앞두고 추가 지출된 공사비에 대한 급금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시공사와 시행사의 분쟁이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예비 입주자들의 피해가 심화되자, 관할 지자체인 북구가 중재에 나섰다. 이에 시공사 A사는 약속된 자금의 일정 부분을 내놓았고, 시행사 B사는 25일 광주시에 국공유지 매수신청 서류를 제출했다. 북구는 토지 매입 절차가 마무리되고 시에서 매각 승인이 나는 대로 준공 승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A사가 준공 승인이 나는 대로 26일 입주지원센터를 개소하겠다고 밝히면서, 예비 입주자들은 이날 예정했던 집회를 보류하기로 했다.

A사 관계자는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만큼 준공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이달 내 입주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하지만 예비 입주자들의 불만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한 차례 입주 연기 등으로 신뢰를 잃은 탓에 입주 일정이 또 미뤄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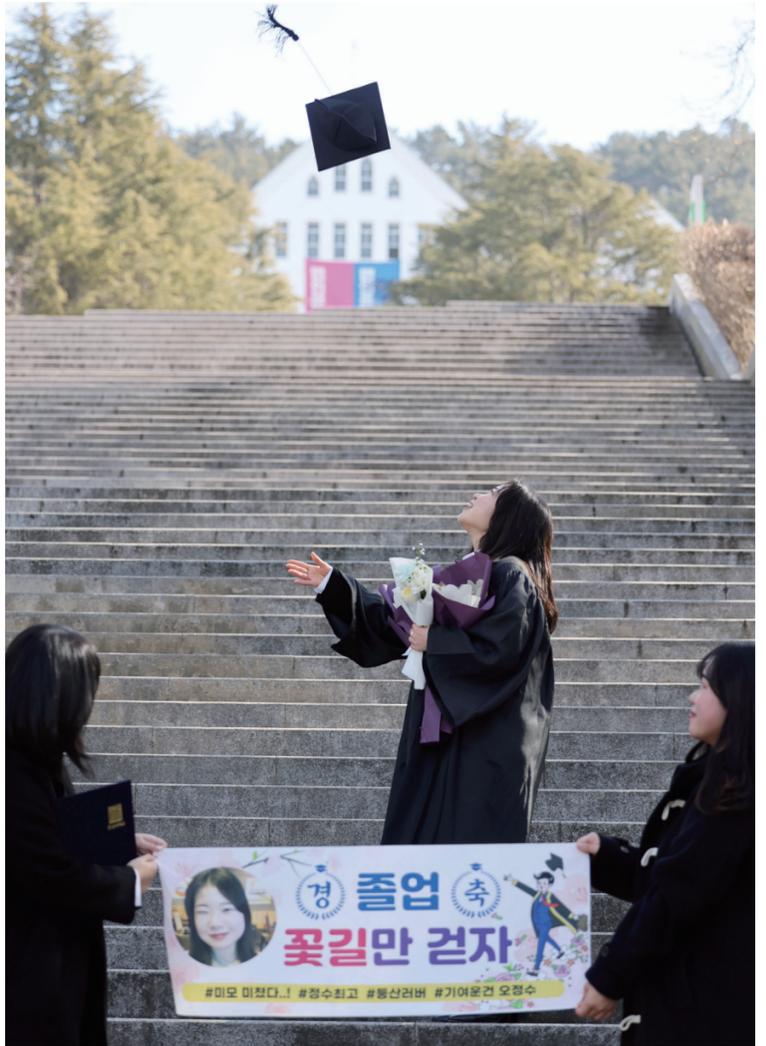
고영범 입주예정자협의회대표는 "본래 입주 예정일보다 2주 지연되면서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이미 거주지를 정리한 세대는 숙박업소를 전전하고 있고, 신학기를 앞둔 초등학교 자녀를 둔 가정은 전입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대출 실행 지연과 전·월세 계약 연기로 추가 비용 부담도 상당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입주 예정자들은 오랫동안 꿈꿔왔던 내 집 마련을 앞두고 기업 간 갈등에 휘말려 주거 불안정에 시달리고 있다"며 "정상적인 입주가 이뤄질 수 있도록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사업 운영자인 시행사 B사 측은 예비 입주자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B사대표이사는 "A사와의 분쟁으로 정상적인 입주가 지연되며 불편을 겪은 예비 입주자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며 "양측의 갈등과는 별개로, 당사는 이번 사태로 인해 발생한 입주자들의 피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검토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



조선대 졸업식 25일 조선대학교에서 열린 2024년도 학위수여식에서 한 졸업생들이 친구들의 축하 현수막속에 학사모를 던지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양배 기자

“수리비 보태고 싶어”... 광주 북부소방에 기부 문의 쇄도

23일~25일 개인·단체 등 15건 “주민과 소방 향한 마음 감사”

지난달 광주 북구 화재 인명구조 과정에서 소방대원의 강제 개문으로 발생한 수리비용에 기부금을 보태고 싶다는 시민들의 문의가 북부소방에 끊이지 않고 접수되고 있다.

25일 광주 북부소방에 따르면 지난 23일부터 이날까지 소방서 직접 방문과 전화를 통해 접수된 개인이나 단체 기부문의는 15건이다. 이들 가운데, 500여만원에 달하는 수리비를 전액 부담하겠다는 사람이 있었으며, 친구들과 함께 돈을 모아 성금을 전하고 싶다는 학생들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현장에서 고생하는 소방관들을 위해 영양제와 함께 기부금을 전달하고 싶다는 업체도 있었다. 한 도어락 업체에서는 수리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직접 현관문을 고쳐줘도 되는지 문의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소방안전본부의 예산으로 수리비를 지원하기로 하면서 북부소방은 “마음

만 받겠다”고 양해를 구한 뒤 모든 기부자들을 돌려보냈다.

앞서 지난달 11일 오전 2시52분께 북구 신안동 4층 규모 빌라의 2층에 위치한 한 세대에서 불이났다.

화재 발생 시점이 새벽 시간대였던 만큼 소방대원들은 일부 거주민이 잠들어 있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응답이 없던 6개 세대의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했다. 이 과정에서 현관문과 잠금장치가 파손됐고, 북구 과정에서 총 500만원에 달하는 비용이 발생했다. 불이 난 세대주가 사망

하면서, 해당 세대 주민들이 보상을 받을 길이 없어졌고, 북부소방에 도움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 조심스럽게 문의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소방안전본부는 광주시의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주민들에게 피해액을 보전할 방침이다.

북부소방 관계자는 “많은 시민들이 불의의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소방관들을 위한 마음을 전해주고 감사하다”며 “수리비 문제가 차질없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준명 기자

누구나 쉽게 바르는 황토 벽지

새집증후군 완벽차단!!

살아 숨쉬는 고어텍스 특허공법 천연황토 코팅제!!

▶ 용도

어린이집 · 유치원 · 한옥 내 · 외부 · 방바닥 · 전원주택 · 경로당 · 아파트 · 펜션 · 찜질방 · 카페 · 휴집
외벽 · 목재 · 양어장 · 물탱크 · 기타 인테리어를 요하는 곳
비가 오면 축축하거나 물이 새어 곰팡이 생기는 모든 곳
기존 황토미장된 곳이나 도배지를 뜯지 않고 위에 시공을 요하는 모든 곳
...비염으로 고생하는 어린이방이나 새집증후군 완벽차단!!

▶ 친환경성

천연황토, 게르마늄, 솔잎, 편백나무, 약쑥, 참숯, 은행잎등 건강에 좋은재료를 업선하여 고분말로 만들어 술향기나는 친환경 웰빙제품입니다.

▶ 색도조절제 화이트(600g) : 원하는 색상 조절가능

▲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

시중에 검증 받지 않은 방수제품들이 난무하여 소비자들을 현혹하여 판매 및 시공하는 피해사태가 있다고 있습니다. 드림코리아는 특허 인증 품질 보증 업체입니다.



저가 황토 제품과 비교 절대 불가!!

전화 문의시 관련 책자를 보내 드립니다.
(제공구입시 시의 지역은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드림코리아
DREAM KOREA

전국 대리점 및 판매점 모집(무담보, 무보증)
문의 : 080-362-7788
www.dreamkorea.biz